

# 농협, 석유 자회사 NH-Oil 설립

## 2010년부터 회원조합 주유소 총괄 및 확대 ... 석유 공급 담당

농협중앙회는 2010년에 석유부문 자회사인 <NH-Oil>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NH-OIL은 전국의 회원조합들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총괄하며 석유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농협 조합은 농업용 면세유 공급 등을 위해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개별적으로 정유기업과 계약을 맺고 석유 제품을 공급받고 있으나 자회사가 생기면 농협중앙회가 일괄적으로 계약을 맺은 후 조합 주유소에 공급하게 된다.

농협 주유소는 2008년 말 기준으로 411개이며, 농협은 이들 주유소에 NH-Oil이라는 간판을 달 계획이다.

농협 관계자는 “정유기업과 계약이 만료되는 주유소 200여곳, 연말까지 새로 문을 열 NH-Oil 주유소 50여 곳, 2010년에 신설될 주유소 40곳을 합치면 2010년까지 300여개의 NH-Oil 주유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11/02>